**Kázání:**  Kolář - Kim

설교:

Ž 116,12-13 Jak se mám odvděčit Hospodinu, že se mne tolikrát zastal? Zvednu kalich spásy a budu vzývat Hospodinovo jméno.

시편 116, 12-13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 Sestry a bratři, kalich je symbol nám evangelickým křesťanům zvláště drahý.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잔은 우리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소중한 심볼입니다.

Je to ovšem také symbol, který byl v minulosti spojován s různými, často protichůdnými významy.

잔은 과거에 여러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잔은 상충되는 의미들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S některými z nich si už dnes nějak nevíme rady.

잔에 대한 여러 의미들 중에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퇴색된 것들도 있습니다.

Během dějin církve bylo do Božího kalicha naléváno nejen výborné víno nebeského království, ale také třeba násilí husitských válek, nesmlouvavý odpor proti katolické církvi, nebo třeba český nacionalismus.

교회역사 동안 잔에는 하늘 나라의 극상품 포도주만 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잔에는 또한 예를 들어 후스 전쟁의 고통, 카톨릭 교회에 대한 강경한 저항 또는 체코 민족주의의 포도주가 담기기도 하였습니다.

A tak se dnes musíme vždy znovu ptát po tom pravém, původním vínu, kterým kalich naplnili bibličtí svědkové.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맨 처음 성경의 증언자들이 잔에 담았던 포도주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 Ale i to biblické víno chutná a voní různě. Ne vždycky přináší radost a požehnání.

그러나 성경 속 포도주 또한 다양한 맛과 향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 속 포도주가 늘 기쁨과 행복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Někdy je také hořké a nesnesitelné.

어떤 때 포도주는 쓰라린 것이고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Prorok Izajáš mluví o poháru rozhořčení a závrati, který musela vypít do dna jeruzalémská dcera (Iz 51,17), když byla vytržena ze zaslíbené země a odvedena do otroctví.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의 딸들이 분노와 비틀거림의 잔을 마셔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51,17)

Mnohokrát musel Izrael pít z kalicha Božího soudu.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에 걸쳐 하나님의 심판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Ano, právě izraelský lid, který byl obdařený mnohým zaslíbením, musel ochutnat také Boží trest, když zapomněl na to, komu patří a komu má sloužit.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누구에게 속하고 또 누구를 섬겨야 하는 가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벌을 받았습니다.

Běda Božímu lidu, když se odcizí svému Bohu a pije ohavné nápoje cizích bohů, které jsou možná na jazyku lahodné, ale uvnitř jsou ničivé jako jed.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으로부터 소원해지고 또 혀에 맛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안에 독을 품고 있는 이방 신들의 유혹의 잔을 마실 때, 이는 그들에게 재앙이 됩니다.

3. Přesto však pro Izraelce kalich zůstává především znamením Boží záchrany.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Zvednu kalich spásy a budu vzývat Hospodinovo jméno!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Těmito slovy děkuje žalmista za to, že ho Hospodin vysvobodil z provazů smrti, které ho ovinuly.

시편 기자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묶고 있던 죽음의 결박으로부터 그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S plným kalichem v ruce si naši židovští bratři a sestry dodnes připomínají vysvobození z Egypta, země otroctví.

오늘날까지도 유대 형제 자매들은 애굽 노예생활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손에 들려진 넘치는 잔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A zároveň očekávají – a my spolu s nimi - , že Bůh jednou vysvobodí z mocností zla a zkázy celé své stvoření.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 물론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만 - 하나님께서 악의 권세로부터 모든 피조물들을 해방시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ůh ještě v tomto světě neřekl své poslední slovo.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 당신의 마지막 말씀을 아직 하지 않으셨습니다.

Zdroje Božího vína spásy ještě nevyschly.

하나님의 구원의 잔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V nebesích pro nás naopak zraje to nejlepší víno, které si pro nás Bůh uschovává až na konec.

또 하늘에는 우리를 위한 극상품의 포도주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 우리에게 이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십니다.

Mezitím ovšem musíme často putovat pouští, tak jako kdysi Izraelci.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광야 길을 지나야 합니다.

Stává se, že dlouho nenarazíme ani na kapku vody.

이 광야 길을 지나면서 우리는 때로 오랫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Žízníme po osvěžení v únavě, po posile v různých životních bojích, po uzdravení našich nemocí i našich vztahů.

우리는 또한 이 광야길 위에서 갈증을 해소해 줄 음료에 목말라 하기도 하고, 치열한 생존을 위한 힘을 갈망하기도 하고, 우리의 병이 낫기를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기를 갈망하기도 할 것입니다.

Žízníme po smíření, radosti a pokoji.

광야길 위에서 우리는 화해와 기쁨과 평화를 갈망할 것입니다.

Náš život se často vůbec nepodobá bohaté hostině.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은 잔치와는 거리가 멉니다.

Ale Bůh, náš hostitel, na nás nezapomíná - a volá nás ke svému stolu plnému dobrého jídla a pití, i když ten náš stůl je zrovna žalostně prázdný.

그러나 우리의 연회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식탁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식탁에, 산해진미로 가득한 당신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4. Pijte z něho všichni, řekl Ježíš svým učedníkům, když jim při poslední večeři podával svůj kalich.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잔을 건네시고 말씀하십니다. 모두 이 잔을 받아 마시라.

Co je nalito v tom Kristově kalichu?

그리스도의 잔에는 무엇이 부어져 있습니까?

Toto jest má krev, která zpečeťuje smlouvu a prolévá se za mnohé (Mk 14,24), říká Ježíš.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막 14, 24)

To zní hrozivě.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위협적으로 들립니다.

Ježíš svým učedníkům opakovaně oznamoval, že jeho pozemská cesta neskončí dobře.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A proto je varoval: chcete-li se mnou putovat do Božího království, připravte se na to, že budete muset nejprve vypít stejný kalich, který piju já.

그러므로 예수님은,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가는 순례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제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시겠다는 결단을 해야 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A v tom kalichu je namíchán smrtící koktejl.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넨 잔이 이와 같은 잔이라면, 이 잔은 죽음을 담고 있는 칵테일 잔입니다.

Je to kalich bolesti, kalich opuštěnosti od bližních i od Boha samotného, kalich potupné smrti na kříži.

예수님의 잔은 고난의 잔이요, 가까운 이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잔이요, 십자가 죽음으로 가는 수치스런 잔입니다.

Když Ježíš podává svůj kalich k pití, říká tím zároveň: připravte se na to, že také vy máte před sebou těžkou cestu.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건네시고 마시게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앞에 있는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하라.

Také vás budou lidé nenávidět, budou se vám vysmívat, budou vás pronásledovat.

사람들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며, 너희들을 비웃고, 너희들을 핍박하리라.

Mnozí Ježíšovi učedníci skutečně skončili podobně jako Ježíš.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같은 고난의 삶을 살다가 죽었습니다.

Vypili Kristův pohár hořkosti do dna.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A až dodnes lidé umírají proto, že vyznávají Kristovo jméno.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5. A přece my, kdo jsme na sebe vzali Kristův úděl, nakonec můžeme zvolat: Zvednu kalich spásy a budu vzývat Hospodinovo jméno!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우리는 마침내 다음과 같이 외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Ten kalich soudu, ponížení a smrti za nás všechny až do dna vypil náš Pán.

우리의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정죄와 낮아짐과 죽음의 잔을 마셨습니다.

My už ho pít nemusíme.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그 잔을 마실 필요가 없습니다.

My naopak nyní smíme pít z kalicha Božího odpuštění a smíření.

우리는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용서의 잔, 화해의 잔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Z kalicha, který přináší proměnu našich vztahů.

우리들의 관계성을 변화시키는 잔.

Z kalicha obnoveného společenství.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잔.

Kolem tohoto kalicha se setkáváme při stolu Páně.

그 잔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둘러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Tento kalich nás spojuje s Bohem a spojuje nás také navzájem – přes všechny hranice, které mezi námi jsou.

이 잔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합시켜 줍니다. 또한 이 잔은 우리 사이에 놓여있는 모든 장벽을 넘어서 우리 각자를 하나로 연합시켜 줍니다.

Zde v Kobylisích to prožíváme obzvlášť silně při našich společných ekumenických bohoslužbách.

우리는 이와 같은 연합을 특별히 이곳 꼬빌리시 교회에서 연합예배를 드리는 중에 체험하고 있습니다.

6. Sestry a bratři, před šesti sty lety se naši předkové ve víře zasazovali o to, aby z Kristova kalicha spasení mohli pít skutečně všichni, ne jen pár privilegovaných.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600년 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몇몇 특권층의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면 누구나 예수님의 구원의 잔을 마시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Ježíšův příkaz „pijte z něho všichni“ byl pro tehdejší církev jen prázdným slovem.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는 주님의 말씀 „모든 이가 다 받아 마시라“는 이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Dnes je slavení večeře Páně podobojí samozřejmostí, dokonce i v katolické církvi se kalich stále častěji podává všem účastníkům bohoslužeb.

그러나 오늘날 이종성찬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카톨릭 교회에서도 자주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A přece ani v této věci stále nejsme u cíle.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Pijeme Kristovu spásu opravdu všichni?

진정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잔을 마신 것이 맞습니까?

S bolestí musíme doznat, že církev je právě u stolu svého Pána rozdělena.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주님의 식탁으로 하나된 교회가 분열되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Zatím nemůžeme pít všichni z jednoho kalicha.

이로 인해 우리 모두는 당분간 하나의 잔으로부터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Ale můžeme jít ještě o krok dál. Co ostatní lidé, nevěřící, církvi vzdálení?

한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Co lidé, kteří touží po spáse a každý den musejí pozvedat kalich obrovského utrpení?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매일 큰 고통의 잔을 들어 올려야 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Lidé žijící ve válkách, lidé zotročení, lidé trpící hladem a žízní, lidé pronásledovaní kvůli svému vyznání, své národnosti či barvě pleti?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 현대판 노예의 삶을 사는 사람들,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 신념이나, 국적이나, 피부색으로 핍박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7. Zvednu kalich spásy a budu vzývat Hospodinovo jméno!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Ano, s vděčností a radostí pijeme z kalicha záchrany v Ježíši Kristu.

네 맞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의 잔을 마십니다.

Ale pamatujme na to, že za tuto naši spásu bylo draze zaplaceno.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구원을 위해 값비싼 대가가 치뤄졌음을 기억합시다.

Je to Kristova krev, kterou pijeme.

이는 우리가 마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Krev prolitá za nás a naše hříchy.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서 흘린 피입니다.

Kalich naší spásy nám tak zároveň připomíná, co všechno zůstáváme Bohu dlužni.

우리의 구원의 잔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빚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A co zůstáváme dlužni našim bližním.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이 이웃에게 진 빚인 것을 말해줍니다.

Naše radost z Božího výborného vína nemůže být dokonalá, když víme, kolik bolesti je kolem nás a jak málo jsme ji schopni utišit.

하나님의 극상품 포도주로 인한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지, 우리가 이 고통을 누그러뜨리기에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아는 순간, 온전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To Boží víno nás nemá omámit a utlumit, abychom zavřeli oči před zlým světem a těšili se z toho, že jsme s naším Pánem.

우리는 기쁨의 포도주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세상에 대해 우리의 눈을 감도록 하거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단지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도록, 현혹하게 하거나 억누르게 하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To víno nám má naopak dodat sílu a odvahu k tomu, abychom vyšli za všemi, kteří potřebují naši pomoc.

기쁨의 포도주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떨쳐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To víno nám neposkytuje jen pokoj, ale vede nás k znepokojení nad nelidskostí a sobectvím kolem nás i v nás.

기쁨의 포도주는 우리에게 단지 평안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주는 오히려 우리를 비인간성이 난무하는 곳으로 또 우리 주변과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으로 인한 불만족이 넘쳐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합니다.

To víno je ochutnávka Božího království, které na konci času zavládne po celé zemi, ale kterému už teď máme jít vstříc. Amen.

이 포도주는 종말의 때에 온 세상이 맛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맛보기, 즉 기쁨의 잔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포도주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잔, 즉 고난의 잔입니다. 아멘